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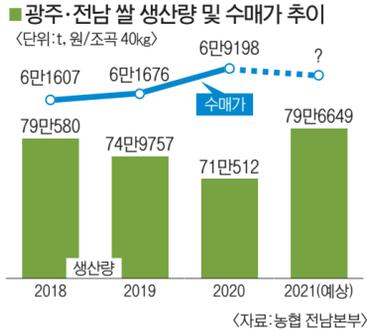
# 5년 만의 풍년에 '7만원대 쌀값' 물 건너가나

〈조곡 40kg 수매가〉

### 광주·전남 올해 예상생산량 79만6649t...전년비 12.1% 증가 지난해 6만9198원 '역대 최고'...올해 6만원대 중반 떨어질 듯

“직전에 한 가마니에 6만9000원 받았으니까 올해는 7만원 줄랑가?”  
 “오메 아버지 RPC 말할 일 있소. 올해는 쌀값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으니.”  
 20일 오전 찾은 광주시 광산구 동림동 통합 RPC에서는 오상규(43)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총무계장이 농민들을 분주하게 맞이했다. 최근 남구 대지동에서 광산구로 이전한 통합 RPC는 이날 말까지 추곡수매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조곡 40kg당 7만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가로 사들였지만, 올해 수매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쌀 생산량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수매가는 40kg당 6만9198원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6만1607원)과 2019년(6만1676원)에 비해 7600원 가량(12%)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7만원에 가까웠던 가격에 농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농정 당국은 최종 수매가가 6

만3000-6만4000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추곡을 매입할 때 농민에게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출하 선급금)은 40kg 한 포대당 6만원(1등급) 정도다. 농민들은 일단 1kg당 '커피 한 잔'도 사지 못하는 1500원을 받고 수확물을 넘긴다. 나머지 차액은 시세를 따져 연말에 수매가를 최종 확정된 뒤 지급한다. 마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각 지역농협들의 선택은 복잡하다. 수매가를 1000원 올릴 때 20만 가마(800만kg) 값을 치르면 2억원을 더 줘야하고, 2000원 올리면 4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 지역 농협 RPC들이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매가를 쉽게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들은 오는 2023년 3월 전국에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표심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통계청은 지역 쌀 생산량이 5% 감소했다 는 발표를 했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오히려 생산량



이 30% 가량 늘었다고 체감하며 수매가 산정에 혼란을 줬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 쌀 생산량은 79만6649t으로, 전년(71만512t)보다 12.1%(8만6137t)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전남 쌀 생산량은 지난 2015년(89만3596t) 이후 5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 올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의 풍년'은 현장에서 체감된다. 한 마지기(200평·661㎡)에서 거두는 조곡이 지난해에는 8-9 포대(40kg 들이)였다면, 올해는

12포대에서 많게는 13포대까지 늘어났다는 게 농가 설명이다. 올해 전남 10a(1000㎡)당 쌀 예상 생산량은 497kg으로, 전년보다 12.9%나 증가했다. 산지 쌀값(정곡 20kg)은 이날 5일 5만6803원으로, 통계를 낸 지난 2013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지만 15일 5만5107원으로 3.0% 반바로 하락했다. 광주·전남 조곡 재고는 지난말 말 기준 2만1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00t)보다 133.0%(1만2000t)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전남 쌀 판매량은 14만9000t으로, 전년(14만6000t)보다 소폭(2.1%) 증가했다. 매출 역시 2220억원에서 2499억원으로 12.6%(279억원) 늘었지만, 지난 2019년 수준(16만8000t·2542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수확기 들어 해남·영암 등지를 중심으로 벼 병해충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쌀 생산량 통계의 정확도가 의심된다"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50%가 무너진 상황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비축미를 확충하고 인위적인 쌀값 조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역 발전 프로젝트 공모 광주상의 수상작 선정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광주·전남 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심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제시한 참신한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했다. 이날 10명의 내·외부 전문위원들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입상 6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영산강 유역에 캠핑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쇼핑, 놀이가 융합된 대규모 엑스포 공원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영산강 따라 캠핑족을 위한 복합 엑스포 공원 조성'(장진태)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첨단관광 메타버스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박자매팀), '오월전망대 건립과 사직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김형주), '대형 복합유통시설 유치'(임동률)가 선정됐다. 이외 '도심내 유류 산업문화시설 개발계획 제안'(안정훈), '한국 명주 사업화 및 생산단지화 전략'(한진해팀), '블록체인 기반 지역 소비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조인코인 팀)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각 300만원, 입상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우수 프로젝트는 차년도 광주상의 사업에 반영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공약과제로 각 정당·후보자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효성첨단소재 경량화 방탄복 선보여

### 파리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알렉스 섬유 홍보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밀리폴 파리(Milipol Paris) 2021'에 참가해 아라미드 섬유 알렉스(ALKEX®)가 적용된 경량화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선보였다. <사진> 프랑스 내무부가 주관해 2년마다 열리는 밀리폴 파리는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 세계적 전시회로 올해 22회째를 맞았다.



한 방검, 방탄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고강력사를 사용한 경량화 방탄복과 방탄헬멧이 새로 개발해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 경량화 제품들은 기존 제품 대비 군인들과 경찰들의 기동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알렉스 고객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5G 통신 광케이블, 전기차 등 분야에서도 사용돼 성장에 예상된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고객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코스피          | 3013.13 (-15.91) |
| 코스닥          | 1001.62 (-3.73)  |
| 금리(국고채 3년)   | 1.847 (-0.019)   |
| 환율(USD)      | 1174.20 (-4.50)  |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 “3무 특례보증 등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에 큰 힘”

### 중기중앙회, 이용섭 시장 초청 간담회 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광주시 남구 에너지벨

리 일반산업 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 입주 및 지원 요청,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구매공시제도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구매제도 적극 활용, 광주 중소기업자재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광주시는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대출과 전국최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등 총 14차에 이르는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업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결과 16개 지자체 중 만족도 1위로 선정된 광주시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